

#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파이팅 해보자

문화향기

이미경

사)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원장



들의 학업에 대한 끝없는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도 한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꼭 대학에도 가보고 싶다고 의지를 보이는 분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길 바라본다.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해본다. 지난주에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현대간호학원(원장박선아)에서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는 자격기준이 까다로워서 특별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0% 이상이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이 생겨난다.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삶을 잘 계획할 수 있는 건 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다. 지자체에서도 평생학습을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학교배움청소년을 위해서도 욕구에 따라 학업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직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다.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등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인생2모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한 활성화가 되어있다. 아직 홍보 부족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조금만 수고를 기울인다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많

음을 알 수 있다.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다. 방송 강의와 출석 수업으로 나눠지는데 지원동에 있는 방송통신고에는 중간에 출석 수업을 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만난 학생들은 연령층도 다양하고 열기가 넘쳤다. 조심스럽게 우리 일행에게도 방송통신고에 다니는 학생이냐고 물어보시는 어르신도 계셨는데 신학기라서 그런지 집단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여서 좋았다. 더 많은 정보들을 통해 배움을 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몇 달 동안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며 하던 국회의원선거도 막을 내렸다. 너나 할 것 없이 시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다.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고 약속했던 만큼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각 계층의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약속했던 것들만 지켜내면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최근에 만났던 모 당선자의 말은 우리가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속에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끝이 없는 배움에 도전하고 도전한 삶이 인정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늘 이야기한다. 더 많은 기회를 잘 살려서 더 이상 소외계층이라는 단어가 이땅에서 사라질 날을 기대해 본다.

1년에 두 번 있는 검정고시가 실시되었다. 4월과 8월에 실시되는데 봄꽃 한창인 4월의 고사장에는 여느때와 같이 긴장감이 감돈다. 그나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몇년전엔 눈이 펄펄 내리서 엄청 춥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매년 학교배움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해 사랑 듬뿍 담긴 간식과 점심등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맞이한다. 행여 아이들이 늦을까봐 계속 전화하고 확인하면서 한 아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 하였다. 시간에 맞춰 헬레벌떡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힘내라고 소리쳐주고 부모님 손을 잡고 힘없이 오는 아이들에게 준비한 도시락을 전해주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다양한 이유로 정규과정을 마치지 않는 사람들이 검정고시라는 과정을 거쳐 학력을 취득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2조에 나와 있다. 아동·청소년들만 검정고시를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을 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많아서 열정이 대단함을 느낀다. 언론매체에 가끔 소개되는 어르신

## 社說

### 부끄럽고 미안한 10주기 세월호 참사

광주 등 전국 곳곳 추모 행사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6일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진도 해상에서는 애끓는 울음이 끊이지 않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다. 이탈리아 방문 중인 강기정 광주시장도 토리노 시청에서 토리노 시민들과 희생자를 추모하며 '안전사회 구축'을 다짐했다. 열 번째 또 다시 맞이하는 4월, 전 세계를 뒤덮은 노란 슬픔이 안타깝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인 승객 등 304명은 영문도 모른 채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됐다. 아이들이 갇혀버린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데도 세월호 근처에서 보고만 있었던 해경,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를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살렸으며 몸부림치던 학생들의 눈길과 몸짓, 그것을 보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안타까움도 가슴을 짓누른다. 부끄럽고 미안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차례 조사와 특검, 검찰 특별수사단 등의 수사에서도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2015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2018년 재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책임자 처벌이나 생존자와 유족의 정신적 충격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알려 달라는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냉소도 여전하다. 세월호 이후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진상규명과 재난 예방 강화를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당연하다. 미흡한 진상 규명과 불명확한 책임 소재는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10주기를 맞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국민 안전이라는 최고의 명제 아래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다짐이 또 다시 빈말이 되어선 안 된다.

### 글로벌대 예비지정 본선에 사활 걸어야

전남대·목포대 등 33개교 선정

정부가 고강도 구조개혁을 약속한 지방대를 선정해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지원하는 2년차 글로벌대학30에 33개교가 예비지정됐다. 광주·전남은 단독형 △전남대 △목포대, 연합형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광주보건대 등 총 6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단독·공동으로 신청한 65곳 중 2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학 수로는 신청 109개교 중 33개교가 들었다. '글로벌대학30'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벌)를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30곳을 선정해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의 과거 대학재정지원사업 중에 단일 대학 지원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글로벌대학에는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우선 적용하고 타 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예비지정은 지난해에 비해 사립대가 약진했고, 전문대로만 구성된

조합도 1단계를 넘었다. 광역시·도 경계를 넘는 대학 간 초광역권 연합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예비지정 대학들은 안심해서는 안된다. 이들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 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대학은 본 지정 마지막 단계인 대면평가에서 글로벌대학 지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부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후 교육부는 대학들의 실행계획서에 대해 본 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벌대학 10곳을 지정한다.

사실 지방대 위기는 다시 거론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이다. 올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부족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수도룩하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의 유력 지방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셈이다. 절체절명의 상황인 만큼, 예비지정 문턱을 넘는 지역 대학들이 최종 관문인 2차 글로벌대학 본 지정에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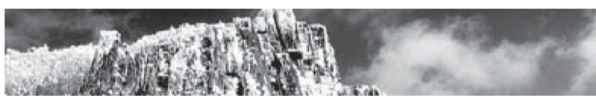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 밖에서 뉴욕 경찰이 가자지구 휴전 촉구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봉쇄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를 연행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 서석대

시오니즘(Zionism)은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조상들이 살았던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시오니즘 운동은 1897년부터 본격화했다고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현 이스라엘이자,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가나안에 최초로 이주한 유대인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집트(애굽) 이주,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끌린 유대민족이 이집트 대탈출을 강행, 광야 40년 생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 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유대 민족은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차례대로 몰아내고 유대 국가를 이룬다. 다윗왕과 솔로몬왕 시절 번창했던 유대국가는 아수르(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BC 5-7세기 경부터 디아스포라가 됐다. 가나안은 AD610년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에 의해 점령당했고, 이후에도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다. 1차 세계대전(1914~1918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전국이 되면서 가나안은 오스만 제국이지만 영국의 통치령이 됐다. 유대민족의 시오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시기다. 이후 1



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가나안 땅을 두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에게 동시에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고, 1948년 5월 14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UN의 중재로 이스라엘의 건국이 이뤄졌다. 문제는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 100% 차지하고 있던 땅을 강대국의 힘에 의해 가나안 땅의 56%를 이스라엘에게 할당하고 나머지 44%(가자지구, 요르단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을 살게 했다. 이같은 이중 분양이 지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불씨가 됐다.

### 가나안 땅의 비극

21세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도, 젓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통곡과 피의 복수가 난무하는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다. 이미 4차례나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에 시작된 전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면서 두 국가 사이에 전운까지 감돈다. 전쟁에 정당성은 없다. 이스라엘의 핍박에 침공을 감행한 하마스의 잔혹한 민간인 살상도 복수를 하겠다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들이 사망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폭력은 더한 폭력을 부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건 대화에 나설 용기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